

2014년도 4월 19일 시행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국 어 (T책형)

해설 - 이재현 교수(원플스)

문 1. 국어의 로마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왕십리 - Wangsimri ② 울릉 - Ulleung
- ③ 백마 - Baengma ④ 학여울 - Hangnyeoul

1. 【정답】 ①

왕십리 : Wangsimri (x) → Wangsimni (o) : ‘왕십리’를 발음하면 [왕심니]가 되는데 이것을 로마자 표기로 그대로 옮긴다.

【오답풀이】

- ② 자음 ‘ㄹ’은 로마자를 ‘ll’로 표기한다.
- ③ Baengma : ‘백마’의 우리말 발음 [뱅마]를 로마자 표기로 옮긴 것이다.
- ④ Hangnyeoul : ‘학여울’의 우리말 발음 [항녀울]을 로마자 표기로 옮긴 것이다.

문 2.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집에서만이라도 제발 편히 쉬어라.
- ② 요즘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 ③ 이번 출장은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 ④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떨어졌다.

2. 【정답】 ②

세대간 (x) → 세대 √ 간 (o) : ‘간(間)’은 의존명사라서 앞말과는 띄어 쓴다.

[참고하기]

간(間)	
의존 명사 (앞말과 띄어 씀)	접미사 (앞말과 붙여 씀)
㉠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 ㉡ 서울과 부산 <u>간</u> 야간열차. ㉢ (일부 명사 뒤에 쓰여) ‘관계’를 나타내는 말. ㉣ 부모와 자식 <u>간</u> 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 (‘-고 -고 간에’, ‘-거나 -거나 간에’, ‘-든지 -든지 간에’ 구성으로 쓰여) 앞에 나열된 말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 ㉥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u>간</u> 에 열심히만 해라.	㉦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을 나타내는 접미사. ㉧ 이틀 <u>간</u> / 한 달 <u>간</u> / 삼십 일 <u>간</u> . ㉨ (몇몇 명사 뒤에 붙어) ‘장소’를 뜻하는 접미사. ㉩ 대장 <u>간</u> / 외양 <u>간</u> . ㉪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접미사. ㉫ 부자 <u>간</u> / 형제 <u>간</u> / 자매 <u>간</u> / 남매 <u>간</u> .

【오답풀이】

① ‘에서’, ‘만’, ‘이라도’는 모두 조사라서 한꺼번에 붙여 쓴다.

④ 했는데도 = 하- (동사 어간) + 였(>았 : 과거시제) + -는데 (어미) + 도(조사)

- ① 그와 나는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이다.
- ② 된장찌개가 입맛을 돋운다.
- ③ 약속 날짜를 너무 바투 잡았다.
- ④ 그는 설레이는 가슴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오답풀이】

①	알음	㉠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 ¶ 그와는 서로 <u>알음</u> 이 있는 사이다. / 얼굴은 진작부터 <u>알음</u> 이 있었다. ㉡ 지식이나 지혜가 있음. ¶ 대불이는 그의 통사정에 마음이 움직여 등짐꾼으로 썼는데 나이 많은 약골인 줄로만 알았더니 <u>알음</u> 있게 일을 잘하였다. ㉢ 신의 보호나 신이 보호하여 준 보람. ㉣ 어떤 사정이나 수고에 대하여 알아주는 것. ¶ 진정한 봉사는 다른 사람의 <u>알음</u> 을 바라지 않는다.
②	돌우다	‘입맛이 당기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돌다’의 사동형 ¶ 싱그러운 봄나물이 입맛을 <u>돌우었다</u> .
③	바투	㉠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 <u>바투</u> 다가왔다 / 어머니는 아들에게 <u>바투</u> 다가가 두 손을 움켜쥐었다. ㉡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 ¶ 머리를 <u>바투</u> 깎다 / 날짜를 <u>바투</u> 잡다.

① 윗목 ② 윗돈
③ 위층 ④ 웃웃

[참고하기]

위 / 윗		웃
위	위아래, 위쪽, 위층, 위편, 위턱	웃거름, 웃국, 웃기, 웃기떡, 웃날, 웃돈, 웃물, 웃바람 (=웃풍), 웃비, 웃어른, 웃웃, 웃짐, 웃통
윗	윗가지, 윗간, 윗글, 윗길, 윗넓이, 윗neck, 윗누이, 윗눈시울, 윗눈썹, 윗니, 윗단, 윗대, 윗덧줄, 윗도 리, 윗돌, 윗동, 윗동아리, 윗마기, 윗마을, 윗막이, 윗말, 윗머리, 윗목, 윗몸, 윗물, 윗바람, 윗반, 윗방, 윗배, 윗벌, 윗변, 윗볼, 윗부분, 윗사람, 윗사람, 윗소리, 윗수염, 윗입술, 윗잇몸, 윗자리, 윗집	※ ‘웃’은 아래위의 대립이 없는 몇몇 명사 앞에 붙어서 ‘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아래위의 대립이 있는 명사에는 ‘윗’ 또는 ‘위’를 쓴다.

문 5. 다음 글의 설명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여름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유의 사항이 있다. 상한 음식이나 비위생적인 음식 먹지 않기, 물놀이를 할 때 먼저 준비 운동을 하고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기, 외출할 때에는 부모님께 행선지와 동행인 말씀드리기, 외출한 후에는 손발을 씻고 몸을 청결하게 하기 등이다.

- ① 이등변 삼각형이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 ② 그 친구는 평소에는 순한 양인데 한번 고집을 피우면 황소 같아.
- ③ 나는 산·강·바다·호수·들·관 등 우리 국토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 ④ 잣나무는 소나무처럼 상록수이며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침엽수이다.

5. 【정답】 ③

지문에서 보이는 서술 방식은 열거이다. 선택항 ③ 역시 열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정의 방식.
- ② 사람을 ‘양’과 ‘황소’로 비유한 방식. 정확히 말하면 ‘양’으로 비유한 것은 ‘은유’, ‘황소’로 비유한 것은 ‘직유’.
- ④ ‘잣나무’를 ‘소나무’와 비교한 설명 방식.

문 6. 밑줄 친 말의 품사를 잘못 밝힌 것은?

- ① 그는 하루에 책 다섯 권을 읽었다. [수사]
- ② 나도 좋은 시를 많이 읽고 싶다. [형용사]
- ③ 학교에서 재미있는 노래를 배웠어요. [조사]
- ④ 정치, 경제 및 문화 [부사]

6. 【정답】 ①

선택항에서 ‘다섯’은 수사가 아닌 관형사로 쓰였다.

‘다섯’	
㉠ 수사로 쓰일 때 (뒷말 조사와 붙여 씀)	㉡ 관형사로 쓰일 때 (뒷말 명사와 띄어 씀)
<용례> 둘에 <u>셋</u> 을 더하면 <u>다섯</u> 이다. 오늘은 <u>다섯</u> 이나 지각을 했다. <u>다섯</u> 까지는 필요 없고 <u>셋</u> 이면 되겠는데.	<용례> 사과 <u>다섯</u> 개 연필 <u>다섯</u> 자루 책 <u>다섯</u> 권

【오답풀이】

- ② 싶다 : 앞말에 대한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 보조용언의 형태로만 쓰인다. ‘~고 싶다/~인가 싶다/~일까 싶다/~이면 싶다’ 등의 제한적인 형태로 쓰인다. 앞말인 본용언은 동사나 형용사 어느 것이든 올 수 있으나, ‘싶다’ 자체는 품사가 형용사라는 것을 주의한다.
- ③ -요 : (주로 해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나 일부 하계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대에게는 잘 쓰지 않는다.

④ 및 :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 품사는 부사.

문 7. 다음 국어사전의 정보를 참고할 때, 접두사 ‘군-’의 의미가 다른 것은?

군 -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①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② ‘가외로 더한’, ‘덧붙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① 그녀는 신혼살림에 군식구가 끼는 것을 원치 않았다.
- ② 이번에 지면 깨끗이 군말하지 않기로 합시다.
- ③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서 군살을 빼야 한다.
- ④ 그는 꺼림칙한지 군기침을 두어 번 해 댔다.

7. **【정답】 ①**

접두사 ‘군-’	
①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용례> <u>군것질</u> / <u>군글자</u> / <u>군기침</u> / <u>군말</u> / <u>군살</u> / <u>군침</u> / <u>군불</u>	② ‘가외로 더한’, ‘덧붙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용례> <u>군사람</u> / <u>군식구</u>

문 8.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황제는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통해 그의 신하를 벌하였다.
- ② 그들은 산야를 떠돌며 초근목피(草根木皮)로 목숨을 이어 나갔다.
- ③ 부모를 반포지효(反哺之孝)로 모시는 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다.
- ④ 오늘의 영광은 각고면려(刻苦勉勵)의 결과이다.

8. **【정답】 ①**

논공행상(論功行賞) : 논할 논, 공로 공, 다닐 행, 상줄 상) : 공적의 크고 작음 따위를 논의하여 그에 알맞은 상을 줌. → 문자의 서술어 ‘벌하다’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한자 성어이다.

【오답풀이】

- ② 초근목피(草根木皮) : 풀 초, 뿌리 근, 나무 목, 가죽 피) : 풀뿌리와 나무껍질이라는 뜻으로, 맛이나 영양 가치가 없는 거친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반포지효(反哺之孝) : 되돌릴 반, 먹을 포, 갈 지, 효도 효) :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孝)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
- ④ 각고면려(刻苦勉勵) : 새길 각, 쓸 고, 힘쓸 면, 힘쓸 려) : 어떤 일에 고생을 무릅쓰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무척 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함.

문 9. 다음 대화에서 A가 범한 어법 사용의 오류와 가장 유사한 것은?

A : 여보세요.
B : 여보세요. 김 선생님 계신가요?
A : 지금 안 계시는데요.
B : 어디 멀리 가셨나요?

A: 예, 지금 수업 중입니다.
 B: 수업은 언제 끝나나요?
 A: 글썄요, 수업 끝나고 학생들과 면담이 계시다고 하셨어요.
 B: 아유, 그럼 통화하기가 어렵겠군요.

- ① 내일 서울역전 앞에서 만나자.
- ② 손님, 주문하신 햄버거 나오셨습니다.
- ③ 국장님, 과장님이 외부에 나갔습니다.
- ④ 선생님은 학교에 불일이 있으셔서 일찍 학교에 가셨습니다.

9. 【정답】 ②

A의 말 속에 틀린 부분이 있다. ‘수업 끝나고 학생들과 면담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높임 표현을 잘못 써서 사람이 아닌 ‘면담’을 높여버린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오류를 보이고 있는 선택항이 ②인데, 손님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사물인 ‘햄버거’까지 높여버린 경우가 되겠다. 흔히 ‘서비스 업종의 어법 오류’ 또는 ‘병원식 어법 오류’라고도 부른다.

【오답풀이】

- ① 서울역전 앞에서 (x) → 서울역 앞에서 (o) : 한자 ‘전(前)’과 고유어 ‘앞’의 의미가 중복.

[참고하기] 자주 등장하는 어휘 중복의 사례들

틀린 표현	옳은 표현	틀린 표현	옳은 표현
처갓집	처가(妻家)	박수(拍手) 치다	박수하다 / 손뼉치다
생일날	생일(生日)	약숫물	약수(藥水)
해변가	해변(海邊) / 바닷가	축구(蹴球)차다	축구하다
실내(室內) 체육관(體育館)	체육관	혹사(酷使)시키다	혹사하다

- ③ 직장에서의 압존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는 반대로 압존법을 사용한 경우라서 잘못된 표현이다.

- ④ 선생님은 학교에 불일이 있으셔서 일찍 학교에 가셨습니다. (x) →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불일이 있어서 일찍 학교에 가셨습니다. (o) : 한 문장 안에서 용언이 두 개 이상일 때 높임선어말어미 ‘-시-’는 마지막 용언에만 붙여서 쓴다.

문 10. 다음은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의 폐해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한 개요이다.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I. 서론 : 청소년 디지털 중독의 심각성
 II. 본론 :
- 1. 청소년 디지털 중독의 폐해 ----- ㉠
 - 가.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 야기
 - 나. 다양한 기능과 탁월한 이동성을 가진 디지털 기기의 등장 ----- ㉡
 - 2. 청소년 디지털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 디지털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 부족
 - 나. 뇌의 기억 능력을 심각하게 퇴화시키는 디지털 치매의 심화 ----- ㉢

- 다. 신체 활동을 동반한 건전한 놀이를 위한 시간 및 프로그램의 부족
- 라.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
3. 청소년 디지털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 가. 디지털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전문 기관 확대
- 나. 학교, 지역 사회 차원에서 신체 활동을 위한 시간 및 프로그램의 확대
- 다. () ----- ㉔
- Ⅲ. 결론 : 청소년 디지털 중독을 줄이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의 촉구

- ① ㉑의 하위 항목으로 ‘우울증이나 정서 불안 등의 심리적 질환 초래’를 추가한다.
- ② ㉒은 ‘Ⅱ - 1’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한다.
- ③ ㉓은 ‘Ⅱ - 2’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Ⅱ - 1’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④ ㉔에는 ‘Ⅱ - 2’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 제한’이라는 내용을 넣는다.

10. 【정답】 ④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 제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본론 ‘Ⅱ-2’의 근거내용이 전혀 없다. 오히려 ‘Ⅱ-2’의 ‘라’ 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을 언급해야 한다.

문 11. 밑줄 친 용언의 종류가 다른 것은?

- ①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
- ② 그녀는 화가 나 밖으로 나가 버렸다.
- ③ 자고 나서 어디로 갈 거야?
- ④ 나도 그거 한번 먹어 보자.

11. 【정답】 ①

들고 가다 = 들다(‘손에 가지다’의 뜻을 지닌 동사 본용언) + 가다(‘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의 뜻을 지닌 동사 본용언)

→ 선택항의 앞말인 ‘들고’와 뒷말인 ‘가셨다’는 모두 본용언이다.

【오답풀이】

나머지 선택항의 밑줄 친 용언들은 앞말의 보조용언이다.

② 나가 버리다 : 본용언 ‘나가다’의 품사가 동사이므로 보조용언 ‘버리다’ 역시 동사임.

③ 자고 나다 : 본용언 ‘자다’의 품사가 동사이므로 보조용언 ‘나다’ 역시 동사임. ‘나다’의 역할은 주로 앞말인 본용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④ 먹어 보자 : 본용언 ‘먹다’의 품사가 동사이므로 보조용언 ‘보다’ 역시 동사임. 여기서 ‘보다’의 역할은 어떠한 행동을 시험 삼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참고하기] ‘보다’가 보조동사일 때와 보조형용사일 때

보조동사 ‘보다’	보조형용사 ‘보다’
㉑ (동사 뒤에서 ‘-어 보다’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동을	㉑ (동사나 형용사, ‘이다’ 뒤에서 ‘-은/는/가/나 보다’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 ㉞ 떡어 보다 / 입어 보다 / 꼼꼼히 따져 보다 ㉟ (동사 뒤에서 ‘-어 보다’ 구성으로 쓰여) 이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음을 나타내는 말. ㊱ 이런 일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 심정을 모른다. / 그런 책은 읽어 본 적이 없다. / 학생 중에는 불량배에게 맞아 본 아이가 많다. ㊲ (동사 뒤에서 ‘-고 보니’, ‘-고 보면’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 난 후에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거나,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말. ㊳ (동사 뒤에서 ‘-다(가) 보니’, ‘-다(가) 보면’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되거나,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말. ㊴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좋은 일도 있네. / 일을 하다가 보면 요령이 생겨서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거나 어렵פות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㉞ 친구들이 왔나 보다. / 열차가 도착했나 보다. / 그 사람이 인기가 많은가 보다. / 재채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니 감기가 들었나 보다. / 두 사람이 몹시 닮은 것이 부자지간인가 보다. ㉟ (동사 뒤에서 ‘-을까 보다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㊱ 외국으로 떠나 버릴까 봐. / 한 대 때릴까 보다. ㊲ (동사나 형용사, ‘이다’ 뒤에서 ‘-을까 봐’, ‘-을까 봐서’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걱정하거나 두려워함을 나타내는 말. ㊳ 야단맞을까 봐 애기도 못 꺼냈어. / 추울까 봐서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다. / 누군가가 초인종을 울렸으나 강도일까 봐 문을 열지 않았다. ㊴ (형용사나 ‘이다’ 뒤에서 ‘-다 보니’, ‘-고 보니’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뒷말의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말. ㊵ 돌이 워낙 무겁다 보니 혼자서 들 수가 없었다.
---	---

문 12.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은 이태원이
다. 여기서 ‘원(院)’이란 이곳이 과거에 여행자들을 위한 휴게
소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리원, 조치원 등의 ‘원’도 마찬가
지이다. 조선 전기에는 여행자가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휴게
소를 ‘원’이라고 불렀다. 1530년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에 따르면 원은 당시 전국에 무려 1,210개나 있었다고 한다.

조선 전기에도 여행자를 위한 편의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
었다. 주요 도로에는 이정표와 역(驛), 원(院)이 일정한 원칙
에 따라 세워졌다. 10리마다 지명과 거리를 새긴 작은 장승을
세우고, 30리마다 큰 장승을 세워 길을 표시했다. 그리고 큰
장승이 있는 곳에는 역과 원을 설치했다. 주요 도로마다 30리
에 하나씩 원이 설치되다 보니, 전국적으로 1,210개나 될 정
도로 많아진 것이다.

역이 국가의 명령이나 공문서, 중요한 군사 정보의 전달, 사
신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과 접대 등을 위해 마련된 교통 통
신 기관이었다면, 원은 그런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마련
된 일종의 공공 여관이었다. 원은 주로 공공 업무를 위한 여
관이었지만 민간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원은 정부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재원도 정부에서 마련했는
데, 주요 도로인 대로와 중로, 소로 등에 설치된 원에는 각각
원위전(院位田)이라는 땅을 주어 운영 경비를 마련하도록 했

다. 그렇다면 누가 원을 운영했을까? 역에는 종육품 관리인 찰방(察訪)이 파견되어 여러 개의 역을 관리하며 역리와 역노비를 감독했지만, 원에는 정부가 일일이 관리를 파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로변에 위치한 원에는 다섯 가구, 중로에는 세 가구, 소로에는 두 가구를 원주(院主)로 임명했다. 원주는 승려, 향리, 지방 관리 등이었는데 원을 운영하는 대신 각종 잡역에서 제외시켜 주었다.

조선 전기에는 원 이외에 여행자를 위한 휴게 시설이 따로 없었으므로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인 여행자들은 여염집 대문 앞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점사(店舍)라는 민간 주막이나 여관이 생기고, 관리들도 지방 관리의 대접을 받아 원의 이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원의 역할은 점차 사라지고 지명에 그 흔적만 남게 되었다.

- ① 여행자는 작은 장승 두 개를 지나 10리만 더 가면 ‘역(驛)’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 ② ‘원(院)’을 운영하는 승려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각종 잡역에서 빠졌을 것이다.
- ③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관리들은 ‘역(驛)’에서 그들을 맞이하거나 보냈을 것이다.
- ④ 민간인 여행자들도 자유롭게 ‘원(院)’에서 숙식을 해결했을 것이다.

12. 【정답】 ④

지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조선 전기에는 ~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인 여행자들은 여염집에서 ~ 숙식을 해결’한다고 나와 있다.

【오답풀이】

- ① 두 번째 단락의 내용
- ② 네 번째 단락 끝부분의 내용
- ③ 세 번째 단락의 내용

문 13. 다음 글의 연결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ㄱ. 과학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실재에만 관심을 두고 그 실재가 앞으로 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 ㄴ. 그러나 각자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 ㄷ. 과학과 종교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다.
- ㄹ. 반면 종교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실재보다는 당위에 관심

을 가진다.

ㄱ. 이처럼 과학과 종교는 서로 관심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ㄱ - ㄴ - ㄷ - ㄱ - ㄱ ② ㄱ - ㄴ - ㄱ - ㄱ - ㄴ
③ ㄷ - ㄱ - ㄴ - ㄱ - ㄴ ④ ㄷ - ㄴ - ㄱ - ㄴ - ㄱ

13. 【정답】 ③

ㄷ과 ㄴ을 자세히 보면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일반적 진술에 해당하는 것은 ㄷ이 될 것이다.(ㄴ은 ㄷ에 대한 구체적 진술) 따라서 ㄷ이 글의 가장 앞에 위치하고 ㄴ이 글의 마지막에 위치해야 옳을 것이다. 나머지 문장들은 글의 흐름에 맞춰서 끼울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ㄷ(일반적 진술) → ㄱ. 과학은 실재에만 관심을 두고 당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 ㄴ. 반면 종교는 실재보다는 당위에 관심을 가진다. → ㄱ. 이처럼 과학과 종교는 관심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다. → ㄴ(구체적 진술)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국 건축은 ‘사이’의 개념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사이’의 크기는 기능과 사회적 위계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공간, 시간, 인간 모두를 ‘사이’의 한 동류로 보기도 한다. 서양의 과학적 사고가 물체를 부분들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불변하는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본질 파악을 추구하였다면, 동양은 사이 즉, 요소들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가치와 의미의 원천을 찾았던 것이다. 서양의 건축이 내적 구성, 폐쇄적 조직을 강조한 객체의 형태를 추구했다면, 동양의 건축은 그보다 객체의 형태와 그것이 놓이는 상황 및 자연환경과의 어울림을 통해 미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동양의 목재 가구법(납날의 재료를 조립하여 구조물을 만드는 법)에 의한 건축 구성 양식에서 ‘사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 양식은 조적식(돌·벽돌 따위를 쌓아 올리는 건축 방식)보다 환경에 개방적이고, 우기에도 환기를 좋게 할 뿐 아니라 내·외부 공간의 차단을 거부하고 자연과의 대화를 늘 강조한다. 그로 인해 건축이 무대나 액자를 설정하고 자연이 끝을 내 주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 ① 동양과 서양 건축의 차이를 요소들 간의 관련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동양의 건축 재료로 석재보다 목재가 많이 쓰인 이유를 알 수 있다.
③ 한국 건축에서 ‘사이’의 개념은 공간, 시간, 인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④ 동양의 건축은 자연환경에 개방적이지만 인공 조형물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다.

14. 【정답】 ④

주어진 지문의 뒷부분에서 ‘(서양의 건축에 비해) 환경에 개방적이고~’라고 언급되어 있다. 자연환경에 개방적이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인공 조형물에 대한 비교는 지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다.

【오답풀이】

- ① 네 번째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 ②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목재 가구법’의 내용
- ③ 두 번째 문장 전체(또한 공간, 시간, 인간 모두를 ‘사이’의 한 동류로 보기도 한다.)

문 15. ㉠ ~ ㉣에 대한 풀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天塹根근을 못내 보와 望洋洋亭亭의 읊은말이, 바다 밧근 하늘이니 하늘 밧근 므서신고. ㉡ 𪎐득 노흔 고래, 𪎐라셔 놀래관딕, 𪎐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 銀은山산을 것거 내여 六육습합의 𪎐리는 듯, 五오月월 長당天塹의 ㉣ 白帍雪설은 므스일고.

- 정철, 「관동별곡」 중에서 -

- ① ㉠ - 은하수
- ② ㉡ - 성난 파도
- ③ ㉢ - 태백산
- ④ ㉣ - 흰 갈매기

15. 【정답】 ②

주어진 부분은 관동 유람 중인 작가(정철)의 마지막 여정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망양정(望洋亭)에 올라 그 아래에 파도가 치는 광경을 바라보며 ‘고래’, ‘은산(銀山)’, ‘백설(白雪)’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선택항 ㉡이 옳은 풀이이다.

【오답풀이】

- ① ㉠ : 하늘의 끝.
- ③ ㉢ : 높이 솟은 파도.
- ④ ㉣ : 물보라를 일으키는 파도.

문 16. 다음 발표에서 사용한 전략이 아닌 것은?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 질문에 “받아들일 만하다!”와 “불공정하다!”의 두 가지 대답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자동차가 매우 잘 팔려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 자동차 대리점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품 안내서에 표시된 가격에 20만 원을 덧붙여서 팔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의 결정은 받아들일 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불공정한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매우 잘 팔려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차를 팔아 왔던 한 자동차 대리점이 할인을 중단하고 원래 가격대로 팔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받아들일 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불공정한 것일까요?

실제로 캐나다에서 130명을 상대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질문에 불공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1 %인 반면, 두 번째 질문에 불공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2 %에 불과합니다. 두 경우 모두 가격을 20만 원 올렸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먼은 가격을 올리는 방식에 대해 정반대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가격에서 인상하는 것은 손해로, 할인을 없애는 것은 이득을 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 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② 물음을 통해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사례와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발표 내용을 조절하고 있다.

16. 【정답】 ④

선택항 ④에서 언급하고 있는 ‘매체’란 통상적으로 말하는 방송과 신문 등의 언론을 말하는데, 주어진 지문 어디에도 이런 매체가 나오질 않는다.

【오답풀이】

- ① 주어진 지문의 마지막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②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연속으로 던져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③ 두 군데의 자동차 대리점의 가격 인상이라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사례에 대한 캐나다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문 17.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녀석은 박 씨 앞에 샷대질을 하듯이 또 거원 소리를 질렀다. 검초록색 잠바에 통이 좁은 까장색 바지 차림의 서른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짧게 깎은 앞머리가 가지런히 일어서 있고 손에는 옅은 붉은 까장 모자를 들었다. 칼칼하게 야윈 몸매지만 서슬이 선 눈매를 지녔고, 하관이 빠르고 얼굴색도 까무잡잡하다. 앞니에 금니 두 개를 해 박았다. 구두가 인상적으로 썩늘하게 생겼다. 구둣방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는 구두에 불과하지만 일단 사람의 발에 신기면 구두도 그 주인의 위인과 더불어 주인을 닮아 가게 마련이다. 끝이 뽕족하고 반들반들 윤기를 내고 있다.

헤프고, 사근사근하고, 무르고, 게다가 병역 기피자인 박 씨는 대변에 꺼칠한 얼굴이 되었다.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예사 손님 같지는 않다.

“글쎄, 앉으십시오. 빨리 해 드릴 테니.”

“얼마나 빨리 되어? 몇 분에 될 수 있소?”

“허어, 이 양반이 참 급하기도.”

“뭘? 이 양반? 얻다 대구 반말이야? 말조심해.”

앉았던 손님 두엇이 거울 속에서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눈길이 부딪힐 듯하자 급하게 외면을 하였다. 세 발대의 두 소년도 우르르 머리들을 이편으로 내밀고 구경을 하고 손이 빈 민 씨와 김 씨도 구석 쪽 빈 이발 의자에 앉아 묵은 신문을 보다가 말고 몸체만을 엉거주춤히 돌렸다.

— 이호철,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중에서 —

- ①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외모와 말투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초점이 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④ 등장인물 중의 하나인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17. 【정답】 ②

주어진 지문의 첫 단락에서 이발소에 나타난 ‘그 녀석’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고, 둘째 단락에서 이발소 주인 박 씨에게 까칠하게 구는 ‘그 녀석’의 말투를 보여주고 있다.

【오답풀이】

- ① 이발소 주인 박 씨와 ‘그 녀석’ 사이의 갈등,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작가)가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작품의 이해】 이호철의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 1. 창작 : 1966년 <창작과 비평> 창간호에 실림
- 2. 배경 : 1965년의 어느 이발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의 나열
→ 1965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이 시기가 군사정권이 절정이었던 시대이면서, 동시에 월남파병이 시작된 시기였고, 북한과의 군사대립이 첨예하게 벌어진 한편, 무장 괴한의 습격과 우리 어부들의 남북 등이 연이어 터져나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으로 삼았다고 함
- 3. 성격 : 풍자적, 현실 비판적
- 4. 방식 :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발소 내부의 에피소드가 등장함
- 5. 주제 : 서민들의 일상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권력의 단면을 보여줌
- 6. 특징 : 작품 속 등장인물 중에서 청년으로 표현되는 인물이 두 명 등장하는데, 이들 모두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발소 주인 박 씨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휘둘리는 전형적인 소시민의 모습이고, ‘늙은 관리’와 ‘교통 순경’은 권력에 빌붙어 살아가는 당시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

문 18. 다음 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지난번 우리 조정에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너를 달래기 위하여 지방의 요직에 임명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도 너는 만족할 줄 모르고 오히려 못된 독기를 발산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군주를 욕되게 하여, 결국 황제의 덕화(德化)를 배신하고 말았다.

『도덕경』에 이르기를, “갑자기 부는 회오리바람은 한나절을

지탱하지 못하고, 쏟아지는 폭우는 하루를 계속하지 못한다.” 하였다. 천지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도 이와 같이 오래 가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의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지금 너의 흥포함이 쌓이고 쌓여 온 천지에 가득 찼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속에서 스스로 안주하고 반성할 줄 모르니, 이는 마치 제비가 불이 붙은 초막 위에 집을 지어 놓고 만족해하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술 안에서 즐거워하며 헤엄치는 것과 같다. 눈앞에 닥친 삶을 즐겨 죽을 운명을 생각지 못하고 말이다.

나는 지금 현명하고 신기로운 계획으로 온 나라의 군대를 규합하니 용맹스러운 장수가 구름처럼 모여들고, 죽음을 가버이 여기는 용사들이 소나기처럼 몰려온다. 진격하는 깃대를 높이 세워 남쪽 초(楚)나라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잠재우고, 전함과 누선을 띄워 오(吳)나라 강의 풍랑을 막으려고 한다.

— 최치원, 「토황소격문」 중에서 —

- ① 단호한 어조로 상대의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역사적 사례를 들어 상대의 미묘한 심리를 언급하고 있다.
- ③ 상대가 행한 일을 나열하며 부당한 처사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④ 상대가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18. 【정답】 ②

현재 주어진 지문에서는 역사적 사례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노자의 <도덕경>만이 인용되었을 뿐이다.
※주의하기 : 원래 ‘토황소격문’은 출제된 지문보다 긴데, 잘려나간 앞부분에서는 중국 진(晉)나라의 승상이었던 왕둔(王敦)과 16국시대 후조(後趙)를 세운 유요(劉曜)가 전횡을 일삼았던 사례를, 그리고 당나라의 절도사 신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안록산(安祿山)과 주자(朱泚)의 사례가 언급되어 있고, 잘려나간 뒷부분에서는 후한(後漢) 말 여포(呂布)와 왕윤(王允) 등에게 죽임을 당한 동탁(董卓)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작품의 이해】 최치원의 ‘토황소격문’

1. 연대 : 881년(신라 헌강왕 7년에 당나라에서 지음)
2. 형식 : 격문이면서 4·6변려체
3. 성격 : 경고, 힐책, 회유
4. 주제 : 반란을 일으킨 황소의 죄를 꾸짖고 투항할 것을 권유
5. 참고 : <격황소서(檄黃巢書)>라고도 불리는 이 격문은 ‘황소의 난’을 진압하고자 당나라 조정에서 토벌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고변(高駢)을 따라간 최치원이 그 대변인의 지위에서 작성한 것이다. 격문의 첫 문장이 ‘광명 2년(881년) 7월 8일, 제도도통검교태위 모(某)는 황소에게 고한다.’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도도통검교태위 모(某)’가 바로 고변(高駢)이다. (격문의 주체로 최치원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고변이 황제에게 최치원의 공을 전해 올림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후에 최치원이 신라로 돌아와서 쓴 저서 <계원필경>에 수록되었다. 고변은 최치원이 당나라에 있을 무렵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의 사정을 알고 여러 차례 그를 후원해 준 인물로도 유명하다.

문 19.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속이 매우 슬겁다.
- 슬겁다 : 마음씨가 너그럽고 미덥다.
- ② 그는 해거름에 가겠다고 말했다.
- 해거름 :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
- ③ 그는 길섶에 핀 코스모스를 보았다.
- 길섶 :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 ④ 그는 책장을 데면데면 넘긴다.
- 데면데면 : 성질이 꼼꼼하지 않아 행동이 신중하거나 조심스럽지 않은 모양.

19. 【정답】 ③

길섶 : 길의 가장자리. 흔히 풀이 나 있는 곳을 가리킨다. ‘길옆’, ‘길가’와 바꿔 쓸 수 있다.

cf. 고샅 :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오답풀이】

- ① 슬겁다 : ㉠ 집이나 세간 따위가 겉으로 보기보다는 속이 꽤 너르다. ㉡ 마음씨가 너그럽고 미덥다.

문 20. 다음 작품이 지닌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쫓도
짚검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형겔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
도 닭의 깃도 개 터럭도 타는 모닥불 //

재당도 초시도 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
사돈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수도 땀장이
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

- 백석, 「모닥불」 -

- ① 구체적 대상을 열거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특정한 조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사물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토속적 시어를 활용하여 향토색을 드러내고 있다.

20. 【정답】 ③

이 시에서는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만드는 타는 대상물을 열거하면서[1연] 모닥불을 쪼는 사람과 동물들을 잇달아 열거하는[2연] 방식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노래하고 있다. 생물과 무생물이 1연과 2연에서 반복적으로 나열되고 있지 특정 사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작품의 이해】 백석의 ‘모닥불’

- 1. 주제 : 모닥불을 통해서 바라본 공동체 의식 또는 평등 의식.
- 2. 구성 :
1연 : 쓸모없는 물건들이 타고 있는 모닥불 → 사소함과 화합의 중요성 / 희생과 부활
2연 : 모닥불을 쪼고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 → 평등의 중요성 / 공동체 의식
3연 : 모닥불과 관련된 할아버지의 슬픈 사연 → 민족의 수난사를 은유적으로 나타냄
※ 1연과 2연이 현재의 상황이라면, 3연은 과거의 상황이다.
- 3. 성격 : 토속적 친근감, 회화적 묘사

4. 특성 :

- ㉠ 반복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
- ㉡ 1연과 2연은 대구적 표현.
- ㉢ 여운을 남기는 듯한 끝맺음(3연) — 아무런 이유의 설명 없이 할아버지의 사연이 등장.
- ㉣ 방언의 사용 → 향토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음.
- ㉤ 회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역순행적 전개)

5. 시어 풀이 :

- ㉠ 새끼오리 : 새끼줄, ‘오리’는 ‘울’의 평안도 방언.
- ㉡ 갓신창 : 가족신의 밀창.
- ㉢ 개니빠디 : 개의 이빨.
- ㉣ 너울쪽 : 널빤지쪽.
- ㉤ 재당 : 다른 말로 ‘재중(再從)’. 6촌 형제를 일컬음.
- ㉥ 초시 : 한문을 좀 아는 유식한 양반을 높여 이르던 말.
- ㉦ 문장 늙은이 : 한 문중에서 제일 위인 사람.
- ㉧ 갓사돈 : 새 사돈.
- ㉨ 몽둥발이 : 떨어져 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로 남은 몸뚱아리 물건.
→ 여기서는 어릴 적 고아로 자란 할아버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며, 일제에 핍박받던 우리 민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다.